

사회 변동에 따른 범죄의 행태적 변화에 대한 고찰*

- 1970년대 이후 한국의 범죄 변화 추이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Crime Transition about Social Environment Evolution

공 배 완**

<목 차>

I. 서론	IV. 사회변동과 범죄의 행태적 변화
II. 산업화와 사회범죄	V. 결 론
III. 정보화와 사회범죄	

<요 약>

사회범죄는 갈수록 다양화·광역화·전문화·지능화·무차별화 되어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사회가 발전하고 국민소득이 향상될수록 사회갈등요인과 범죄가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과는 달리 오히려 범죄의 양상도 사회발전과 더불어 더욱 다양화·전문화 되면서 발전되어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사회발전과 범죄의 비례적 관계로 설명되어질 수 있고, 이는 자본주의의 발달과 사회의 발전이 밀접한 연관성을 갖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양자 간의 상관관계에 대해 역사적인 과정을 통한 실질적인 검증과 사실관계의 규명을 논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내용은 크게 세부분으로 나누어서 분석하고 있다.

첫째, 산업화의 진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범죄의 유형 및 행태와 이에 대한 사회적 인 구조를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분석하고 있다.

둘째, 산업사회 이후의 정보화 시대가 도래되면서 나타나는 새로운 범죄의 모습을 사회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마지막 단락에서는 사회의 변동에 따른 범죄의 행태적 변화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을 하고 있으며, 사회변동은 결국 범죄의 변화를 초래한다는 상관관계를 입증하고 있다.

주제어 : 사회변동, 사회발전, 범죄유형, 범죄발달, 범죄의 행태

* 본 연구는 2008학년도 경남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이루어졌음.

** 경남대학교 법정대학 경호비서학부 교수

I. 서 론

후기 산업사회 이후의 사회변동 현상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사회변동은 사회발전과 사회갈등을 동반하면서 현대 사회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고, 이에 따른 가치관의 변화와 삶의 행태도 변화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세계화·국제화의 기치아래 세계적인 추세로 확산되면서 변화의 주도권 쟁탈전과 변화에 편승하려는 국제사회의 움직임이 가속화 되는 현상으로 나타났고, 이에 대한 부작용도 속출했다. 이는 성장과 발전의 원동력을 기술개혁과 사회변동을 통해서 이룩하려는 후기 산업사회의 특징이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과정에서 국가 간의 경쟁노력이 과도한 변화를 촉진하게 된 배경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국사회도 1970년대 이후 괄목할 만한 성장과 발전을 이룩하였고 국민의 경제수준과 국가의 경제지표도 향상되는 급속한 국가발전을 이룩하였다. 특히, 국가 주도적 계획경제 체제는 대기업 중심의 발전전략을 수립하면서 내실보다는 외형적인 크기에 국가의 관심을 집중시켰고, 이는 곧, 질적 수준의 향상보다는 양적 팽창의 비중을 확대함으로써 여러 가지 사회 부조리 문제를 야기 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대부분의 사회문제는 사회변동에 의한 사회계층의 구조화 문제에서 발생하고 있다(Schwartzberg, 1988 : 88-89). 사회변동의 과정에서 기존의 사회체제가 변화를 일으키면서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현실의 도래에 대한 여러 가지 혼란의 과정이 사회문제로 파생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자본화·산업화·도시화는 대표적인 사회변동의 동인으로서 빈곤문제, 실업문제, 질병문제, 환경문제, 범죄문제 등 각종의 사회적인 문제를 도출시키면서 실업자와 극빈자, 환자와 범죄자 등을 양산하고 있다.

사회변동의 문제는 사회발전과 사회범죄를 동반하고 있다. 또한 양자는 불가분의 관계로서 사회발전은 사회적인 폐단을 유발할 수밖에 없는 모순을 가지고 있다. 이는 성장지향 논리가 사회발전을 유도하면서 저발전에 대한 그늘을 양산한다는 것이다. 즉, 성장을 통한 혜택이 있는 반면 성장에 의한 폐단도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은 지속될 수밖에 없는 당위성을 가지고 있으며 멈출 수 없는 동력으로 사회를 이끌어 가고 있다. 해결되어야 할 문제는 사회변동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의 사회적인 부조리와 폐단, 범죄 등을 최소화 하는 문제와, 가능할 수 있다면 예방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문제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사회변동에 따른 사회발전의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사회변동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의 사회문제, 특히 범죄발생 및 범죄유형의 다양화와 다면화, 집중화와 광역화 등 사회범죄에 대한 변화추이를 살펴봄으로서 사회변동과의

연관성을 규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본 연구에 있어서 1970년대 이후를 분석 기점으로 선정하는 것은 역동적인 산업화의 과정이 시작되는 시점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이고, 또한 약 30년간의 짧은 시간이지만 변동의 폭과 양이 과거의 어느 시점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방대하기 때문이며, 이에 대한 범죄의 행태적 변화에 있어서도 시사점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역사적 문헌고찰을 통해 사회변동에 의한 사회발전과 사회범죄의 대비적 관계를 규명하는 노력으로서 논제에 대한 연역적인 접근의 방법을 시도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분석도구를 사용하여 범죄유형의 정형화 또는 범죄내용의 계량화를 도출해 내는 통계적인 접근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주관적인 시각에 따라 여러 견해가 발생 될 수도 있는 개연성을 가지고 있다.

II. 산업화와 사회범죄

1. 산업화의 전개과정과 한국 산업화의 특징

농업적·전통적 사회가 공업생산을 바탕으로 하는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을 산업화라고 하며, 이러한 산업화는 전체 경제구조에서 공업부문에 대한 비중이 확대되어 가는 과정을 말한다. 공업화는 산업자본과 고정자본의 방대한 형성, 자본투자를 통한 기술혁신의 진행, 정태적인 농업사회에서 동태적인 공업사회로의 전환, 인구집중의 도시화 유발 등 일반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역사적으로는 18세기말 영국의 산업혁명을 기점으로 세계적으로 확산되었고 현재에도 진행 중이다. 로스토(W.W. Rostow, 1960)에 따르면 경제발전의 단계과정을 <전통적 사회 → 이룩을 위한 선행 조건기 → 이룩기 → 성숙으로의 전진기 → 고도 대중소비시대>의 경제발전 5단계 설을 제시하여 발전과정에서 공업화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공업화를 통한 국가발전의 당위성을 설명하였다. 이는 농업화의 심화과정을 거쳐 자본주의 단계를 통해 정치·경제적 사회주의를 이룩한다는 마르크스주의의 국가발전단계설에 대한 정면으로 반박하는 이론이었다.

따라서 일반적인 산업화의 과정은 공업 중심적 생산과정을 통해 경제적인 성장과 사회발전을 이룩하는 것을 말하며, 산업화가 진전될수록 산업구조는 1차 산업에서 2차 산업, 2차 산업에서 3차 산업의 형태를 띠게 된다. 산업화의 특징으로는 과학기술의 진보와 생산성 향상, 직업의 전문화, 노동자들의 획일적 작업, 계층구조의 피라미드화, 도시화 현상, 소비형태의 획일화와 소비수준의 향상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산업화는 성장을 통한 삶의 질의 향상을 가져왔지만, 반면 성장제일주의로

인한 부의 불균형과 사회적 불평등 심화, 노동계층의 소외현상, 사회적 아노미 현상, 범죄의 증가 등 각종 문제점을 유발시키기도 하였다

한국은 1876년 개항 이후부터 산업화가 시작되어 1910년 일제강점부터는 일본의 군수기지로서 산업화가 진전되었다. 광복 후에는 6.25전쟁으로 그 동안의 성장 기반이 완전히 파괴되어 자립경제의 기반을 구축하지 못한 채 미국의 경제적 원조로 안정을 찾아갔다. 제3공화국 이후부터는 꾸준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산업화는 진전을 보게 되었고, 1962년부터 1982년 사이에 고도성장을 이룩하며 획기적인 2차 산업의 성장과 수출증대가 일어났다. 그 이후 경공업에서 중화학공업으로 산업구조가 바뀌어갔으며, 21세기에는 서비스산업과 정보통신 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산업화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산업화과정은 다른 경제선진국들과 비교하여 특징적인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공업화를 통한 국가경제성장을 달성하였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다른 국가들과 별 다른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으나, 산업발전의 요인과 추진 과정에서는 차이점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 산업화과정의 특징을 요약한다면 ①정부주도형 ②자본과 기술의 외국 의존형 ③시장의 대외 의존형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김성수, 1997 : 166-167). 즉, 한국의 산업화는 외부자원과 외부요인에 의존한 개발정책이며 시장원리에 입각한 자유주의 논리보다는 정부주도의 계획경제에 의한 개발논리에 의해서 이루어 졌다고 하는 점이 특징이다.

경제개발전략은 개발의 주체에 따라 정부주도형 개발전략과 민간주도형 개발전략으로 나뉜다. 정부주도형 개발전략은 정부가 개발에 필요한 제반요인을 제공하거나 충당하며 경제개발의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주요 산업부문의 육성에 주도적 역할을 하는 개발방식이며, 민간주도형 개발전략은 은행 또는 기업의 민간부분이 개발의 주체가 되는 개발방식으로서 시장원리에 입각한 개발방식이다. 대부분의 선진국은 공업화 과정에서 금융자본의 발달 및 기업의 재투자 등으로 민간주도의 공업화가 이루어졌지만 후진국의 경우, 자본축적의 수준과 기술보유의 수준이 낮고 기업의 자금조달 및 경영능력이 취약하기 때문에 정부가 경제개발을 주도하게 되는 정부주도형 개발전략을 취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제1차 경제개발계획부터 정부가 내자(內資) 및 외자(外資) 동원과 배분에 직접 관여하고 주요 산업부문을 관리·육성했기 때문에 대표적인 정부주도 개발전략의 사례로 꼽힌다.

외국자본의 의존에 관련하여서는 개발도상국의 경우 내자(內資)에 의한 성장전략이 자본공급의 부족으로 발전이나 성장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외자도입에 의존하여 성장과 발전에 필요한 기초요인을 제공하게 된다. 즉, 경제개발에 필요한 막대한 자본을 외국자본으로 충당한다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도 산업화의 추

* <http://www.100.naver.com>(두산백과사전)

** <http://100.naver.com/100.nhn?docid=10952>

진과정에서 빈곤의 악순환이 발생되고 있었기 때문에 개발에 필요한 자본조달이 자체적으로 어려웠고 따라서 외국자본의 도입에 대부분을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기술 분야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한국은 자체보유기술과 기술개발능력이 취약했기 때문에 산업화에 필요한 대부분의 기술은 외국의 선진기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따라서 산업화 과정에서 외국기술은 절대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시장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었다. 내수 소비시장의 미성숙은 국내 생산물에 대한 충분한 흡수작용을 하지 못함으로 해외시장의 개척은 절대적인 성장의 필수 과제였고, 이에 따라 수출은 경제발전의 기본조건이 되었다. 특히 수출주도형 개발전략은 기업 집중형 산업구조를 형성하였고, 성장우선의 외형적인 개발방법을 택함으로써 성장과정에서의 많은 문제점을 도출시키기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한국의 상황에서는 선진 산업구조의 달성에 필요한 자본과 기술, 경영의 모든 측면에서 효율성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고, 이에 따라 대기업의 육성을 통한 경제발전전략을 모색하였다. 따라서 대기업은 경제발전의 선도적 입장에서 한국 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였다.

산업화를 통한 한국의 경제발전은 7차에 걸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져 왔다. 시기별로 보면, 1962~1981년까지 4차에 걸쳐 경제개발계획이 실시되었으며 1982년부터는 그 명칭이 경제사회발전계획으로 바뀌어 실시되어, 1982~1986년의 제5차, 1987~1991년의 제6차, 그리고 1992~1996년의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으로 이어져 오면서 한국경제는 분배보다는 성장우선의 정부주도형 개발을 추진해 왔다(김성수, 1997 : 170-172). 즉, 한국 산업화의 성장모델은 '성장 지향적(growth-oriented)', '공업 지향적(industry-oriented)', 그리고 '대외 지향적(outward-oriented)'으로 요약될 수 있다(송병락, 1997 : 209-212). 이러한 성장전략의 배경에는 정치적 요인과 경제적 요인, 그리고 기술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었고 역사적 산물에서 기인하는 '국민성'과도 깊은 연관이 있었다. 또한 산업화의 동인으로 작용하였던 성장 이데올로기는 정부와 기업, 근로자(官·勞·使)간의 협조적 관계의 '공동체주의'****가 크게 작용을 하였고, 이는 대립적 관계로 형성된 서

*** 한국의 외자도입은 미국의 대외원조정책이 1957년 이후 종래의 무상원조공여 방식에서 개발차관 위주로 전환됨을 계기로 하여 클로즈업되기 시작하였고, 1962년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 추진됨에 따라 본격화하였다. 즉, 1960년의 외자도입촉진법과 1962년의 차관의 지불보증에 관한 법률, 장기 결제방식에 의한 자본도입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을 통합한 외자도입법이 1966년에 제정·공포되었고, 1967년에는 다시 외자도입의 질적 선별을 위한 외자도입종합합리화시책이 마련되었다. 그 후 이와 같은 제도상의 정비와 더불어 유리한 외자도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대한국제경제협의회(IECOK)를 구성하고 경제외교에도 주력하였고, 이는 경제개발계획 추진의 원동력이 되어 왔다 (<http://100.naver.com/100.nhn?docid=1177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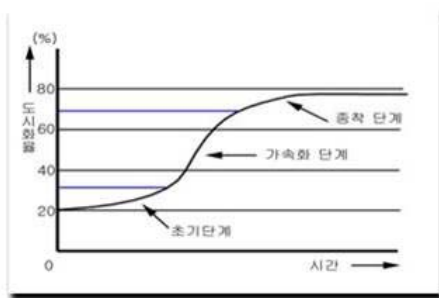
**** 산업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동체주의의 특징으로는 ①인간관계의 중요성 ②비계약적 또는 비법률적 관계의 중요성 ③비공식적 관계의 긴밀성 ④비물질적 동기 ⑤정부의 시장관리체제 등으로 나타난다(송병락, 1997 : 213).

구식 자본주의의 발전 이데올로기와는 큰 차이가 있었다(송병락, 1997 : 213).

2. 산업화와 사회범죄

산업화 과정에서 일어나는 사회문제의 근본원인은 자본주의·산업화·도시화의 3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자본주의’는 인간의 물질적 욕망에 그 기원을 두고 있으며, 자본가치의 사회적 지배와 자본능력의 사회적 통제는 이러한 자본주의의 현상을 잘 반영해 주고 있다(공배완, 2004 : 125). 즉, 자본주의는 물질 중심적 사회구조를 형성함으로써 ‘성장’과 ‘풍요’의 긍정적인 측면과 ‘빈곤’과 ‘범죄’라는 부정적인 측면을 동시에 안겨다 주었다. 그러나 자본주의는 산업화의 동인으로서 경제발전을 통한 사회발전을 유도한 수단으로 작용한 것임에는 틀림없다.

산업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본주의의 폐단은 여러 측면에서 나타났다. 특히 자본의 독과점 현상은 소수계층에 의한 정치·경제의 지배력 구조를 발생시키고 정책 결정과정에서의 제한적 요인을 과생시키기도 하였다. 다수를 위한 복지사회 구조보다는 소수에게 유리한 계층 사회구조가 형성된 것이다. 이러한 사회에서 국가는 자본주의의 제도적 수단으로 작용되고, 자본주의는 국가조직의 기능을 이용하여 더욱 확대 재생산 된다(Lilly Marcou, 1980 : 126). 한국에서는 이러한 ‘제도(국가)’와 ‘이념(자본주의)’의 정책적인 결합현상이 산업화의 활성화를 유도하였고, 소위 대기업체제의 산업화는 경제발전의 선도적 입장에서 국가발전의 지렛대로 작용을 하였다. 따라서 도시화(Urbanization)를 도시인구의 증가라고 정의한다면 인구증가의 원인에 기인하여 도시화는 산업 구조적 입장(Industrial Aspect)에서 산업화의 부산물로 보는 견해가 대부분이다. 즉, 1차 산업에서 2-3차 산업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인구의 도시유입 현상이 발생하고 산업현장을 중심으로 도시의 과밀현상이 나타난다. 이러한 도시화의 곡선을 살펴보면 아래의 그림과 같다.



- ① 초기 단계 : 도시화율 30% 이하, 농업 중심 사회
- ② 가속화 단계 : 이촌향도현상 심화, 공업화 초기 단계
- ③ 종착 단계 : 도시인구율 70% 이상, 신장률 둔화

<그림 2-1> 도시화 곡선

자료 : blog.naver.com/apffhddl1224?Redirect=Log&logNo=140031214914

위의 그림은 도시화의 유발요인을 산업 구조적 측면에서 분석한 도표로서 도시화의 초기단계는 농업중심사회로서 도시화 비율이 전체 인구의 30%가 되지 않는 상태를 말하며, 가속화 단계는 공업화의 발전과정에서 농촌에서 도시로 인구유입이 빠른 속도로 발생하는 시기를 말한다. 한국은 1970년대 이후 1990년대 까지가 이 시기에 해당 된다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이 시기는 급속한 도시팽창이 나타난 시점이기도 하다. 또한 도시인구율이 70% 이상인 경우에는 도시화 과밀현상으로서 도시화 과정의 마지막 단계로 평가되며 산업화의 둔화로 인한 도시화 유발요인이 퇴색되는 시기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도시화의 종착단계에서는 과거와 비교하여 도시로의 인구유입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 시점으로서, 이는 도시화의 유발요인의 감소와 더 이상의 유입 가능한 인구가 없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표 2-1> 세계의 도시화 추이

구 분	1950	1960	1971	1975	1980	1990	2000
선진국	53.4	60.1	66.2	69.2	71.9	77.0	81.6
후진국	15.7	20.9	25.0	27.3	29.8	35.0	40.8
한 국		28.0	42.5	48.4	57.4	69.4	77.2

자료 : 통계청

출던(H. M. Choldin, 1990 : 183-236)에 의하면 서구의 도시성장은 농업혁명-도시혁명-고대도시-중세도시-산업도시의 다섯 단계로 진행되었다고 한다. 산업화가 계속 진행되면서 서구의 도시들은 공간적으로 더욱 확대되었으며 기능적으로 더욱 분화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도시화는 1960년대 이후 산업화에 따른 인구의 이촌 향도 현상으로 도시화는 지속적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와 공업 도시의 성장이 두드러져 1970년대 말에는 도시화율이 50%를 넘었고, 1990년대에는 75%를 넘어섰다. 1970년대 이후의 도시화에서 두드러진 현상은 서울을 비롯한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가 크게 성장하여 도시 체계가 심한 불균형을 이루게 되었고, 도시화로 인한 사회범죄도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산업화에 따른 부작용은 기업 및 은행의 부실화와 자립력 약화·비능률, 그리고 지역 간·부문 간·계층 간 불균형 문제 등이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고, 도시화에 따른 심각성은 사회범죄로 이어졌다. 물론 산업화와 도시화는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상호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은 생활방식에 대한 물리적 조건을 변화시킴으로 사회적인 범죄환경을 만들어 낸다. 따라서 범죄문제는 오늘날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고, 이러한 범죄의 발생 원인을 사회적인 문제-주택문제, 빈곤문제, 차별문제, 불평등 문제 등-즉, 주로 산업화의 과정에서 찾고 있다. 특히,

주목할 만 한 것은 산업화의 정도가 심화될수록 범죄의 강도는 폭력성으로 나타나고 청소년 범죄 등 범죄의 연령도 하향화 되어가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 것이다. 범죄의 실제 통계를 보면 개인적인 결함에 의한 범죄도 발생하지만 그 보다 사회구조적 문제에서 더 심각하게 발생된다고 하는 것이 범죄와 산업화는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김근홍외, 2002 : 76).

산업화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의 사회범죄에 대해서는 ‘구조기능주의(Structural Functionalism)’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 구조기능주의는 개인이나 집단보다는 전체사회와 제도들 사이의 상호연관성에 관심을 갖고, 주로 사회생활의 조건과 욕구를 밝혀내고 주어진 사회가 그 조건이나 욕구를 만족시키는 과정의 연구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회문제의 발생은 어느 하위체계가 수행해야만 하는 기능적 요건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요인, 규범체계가 무너지도록 하는 요인, 사회화의 실패요인, 사회통제의 실패요인 등에서 그 이유를 찾고 있다(김근홍외, 2002 : 48). 산업화·도시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타의 사회문제 또는 사회범죄 문제는 제도와 사회적인 욕구에서 비롯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산업화의 심화정도에 따라 범죄의 폭력성과 지능성도 더욱 발전되어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이는 사회생활의 조건과 욕구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또한 윌렌스키와 르보(Wilensky & Lebeaux, 1965. 김근홍 외, 2002 : 재인용)는 사회공동체 의식의 붕괴를 산업화에서 찾고 있다. 산업화로 인해서 신흥지주의 몰락과 산업자본가의 등장, 개발과정에서의 신흥중류 탄생, 직업의 분화와 사회의 계층화 등은 사회적 욕구의 불충분으로 파생되어 다양한 범죄행위를 촉발시킨다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여타의 요인이 산업화 과정에서 파생되어 사회적 부조리로 작용하고 있고, 이러한 현상은 각종의 사회범죄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게 된다. 한국의 산업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의 범죄유형과 범죄종류를 표로서 대비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표 2-2> 범죄종류별 범죄발생 건수

범죄유형 년도	형법범 발생건수	재산범죄 발생건수	강력범죄 발생건수	총 계	증가율	비 고
1972-1976	1,063,810	602,421	129,885	1,796,116	-	3차 경제개발
1977-1981	1,475,100	746,590	156,663	2,378,353	32.4%	4차 경제개발
1982-1986	1,382,628	960,126	188,882	2,531,636	6.4%	5차 경제개발
1987-1991	1,226,731	824,571	190,335	2,241,637	-11.4%	6차 경제개발
1992-1996	1,637,110	1,151,160	205,448	2,993,718	33.5%	7차 경제개발
1997-2006	6,525,005	3,946,952	1,756,651	12,228,608	308.4%	신경제개발

* 자료 : 통계청 자료실

** 5대 강력범죄라 함은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을 말함.

위의 표에서 살펴보듯이 산업화의 과정에서 범죄의 발생건수는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제6차 경제개발 시기에는 의외로 총 범죄발생 건수가 감소하는 현상을 보였지만 강력범죄는 꾸준한 증가추세에 있었다. 반면 재산범죄와 형법범의 발생건수는 전년도 대비하여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연 9~10%의 고도성장의 과정에서 사회적인 조건과 개인적인 욕구가 어느 정도 일치되므로 범죄촉발요소가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되며, 또한 산업사회화 과정에서 제도의 불균형도 어느 정도 해소되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III. 정보화와 사회범죄

1. 정보화 시대의 사회적 특성

‘정보화(Informatization)’는 정보를 생성, 가공, 전달, 이용 및 축적을 의식적으로 행하는 활동의 총체를 말한다. 따라서 정보화 사회(Information Society)는 물재(物財)의 생산이 그 경제활동의 중심에 있는 사회(공업사회)에 비하여 지식·정보 등 비물질적 편익의 생산이 중심이 되는 사회를 말하며, 탈공업화 사회(post-industrial society)라는 개념이 사용되기도 한다. 즉, 공업을 대신하여 정보의 조작성으로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산업이 GNP의 비율이나 산업 종사자 수 등의 측면에서 보다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기존의 공업화 사회를 자원·에너지집약형 사회라고 볼 때 정보화 사회는 지식집약형 산업구조를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정보화 사회의 동인에 대한 설명이론으로 주로 사용되는 것이 ‘기술결정론(technological determinism)’과 ‘사회결정론(social determinism)’이다. ‘기술결정론’은 정보화에 대한 원인적 동인으로서 정보통신 분야의 기술혁신을 통한 정보화 사회의 건설을 설명한 이론이다. 대표적인 학자로는 다니엘 벨(D. Bell)과 풀러(B. Fuller), 엘룰(J. Ellul), 맥 더모트(J. McDermott) 등이 있다. 이들은 탈산업사회의 도래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B. Fuller, D. Bell)과 부정적 입장(J. Ellul, J. McDermott)을 피력했으나 정보화 사회 자체의 도래에 대해서는 공통된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 반면 ‘사회결정론’은 기술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인식적·필요적 입장에서 정보화 사회를 설명한 이론으로서 기술보다는 사회적인 요인을 강조하고 있다. 대표적인 학자로는 사모프(D. Sarnoff), 솔라 풀(Sola Pool), 클링(R. Kling) 등으로서 이들은 지도자의 정책적인 의지나 사회적인 필요성에 의해 정보화 사회가 건설된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

정보화 사회의 특징은 3차 산업이 중심적인 비중을 차지하며, 직업구조면에서는

화이트칼라, 즉 관리적(管理的) 직업종사자, 전문적·기술적 직업종사자, 사무종사자, 판매종사자 등이 큰 비율을 차지한다*. 또한 경제적 측면에서의 산업구조는 자원을 대량 소비하는 '하드웨어(hardware)형 경제구조'를 거쳐 정보화, 지식집약화, 서비스화 등으로 집약되는 이른바 '소프트웨어(software)형 경제구조'로 전환 되는 것이 사회구조적 특징**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사회구조는 분권화·다원화된 참여자들의 수평적 관계, 자유로운 연대가 새로운 사회 철학적 이념으로 등장하고, 나아가 국가 간의 경계가 갖는 의미가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상황에서 「탈 중심화」는 국가를 넘어선 정보의 교류로 세계를 하나의 시민으로 통합시키는 기술적인 역량을 갖게 된다.

정보화 사회에서는 다양화 및 개방화를 통한 가치관의 변화와 정보의 원활한 유통으로 인한 사회생활 전 분야에서의 정보이용 및 정보시스템의 일반화가 이루어지게 되고, 이로 인한 개인의 생활은 극도로 원자화 또는 분자화 되어가는 경향을 가지게 된다. 인간관계의 실질적인 교류가 온 라인 상에서 이루어지게 됨으로 개인 생활의 분자화는 가치관의 혼란을 초래하여 다중인격체 형성의 정신적인 문제까지도 유발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된다.

정보화 사회가 갖는 긍정적인 측면은 필요한 정보제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는 측면과 과거의 일방적인 정보 전달 시스템을 깨뜨리고 상호작용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정보교류의 활성화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점이다. 또한 중앙 집권적이고 수직적인 조직 원리를 분권적이고 유연한 조직 원리로 전환시킴으로 수평적 관계를 조성하게 되고, 가상공간의 공동체와 시민 사회의 영향력을 강화하여 새로운 온 라인 상의 인간관계의 형성을 하므로 삶의 또 다른 영역을 형성하게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지역경제의 활성화, 참여민주주의 실현, 전자상거래 활성화, 재택근무 등 여러 분야에서 많은 장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반면 정보화 사회로 인한 부정적인 측면도 도출하고 있다. 정보의 유통으로 개인 사생활의 침해 및 범죄 발생, 폭력물이나 음란물 등의 불건전한 정보의 유통 및 컴퓨터를 이용한 범죄의 증가, 정보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의 심화, 정보의 독점현상 발생, 지배 권력의 수단으로서 정보의 이용, 사회적 혼란야기 등 과거 산업사회에서는 볼 수 없었던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있다.

2. 정보화와 사회범죄

정보화 사회의 발전은 여러 가지 생활의 편리를 제공하고 삶을 윤택하게 해주는

***** http://kr.ks.yahoo.com/service/ques_reply/ques_view.html?dnum=H&qnum=500634

* <http://100.naver.com/100.nhn?docid=89307>

** http://kr.ks.yahoo.com/service/ques_reply/ques_view.html?dnum=AAA&qnum=307936

측면이 있으나, 반면 정보화로 인한 시민생활이 오히려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특히,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각종의 신종범죄가 정보기술의 발달로 인해 폭증하는 현상이 발생함으로 시민 개인의 생활에 있어서 신체적인 위협은 상대적인 감소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재산범죄나 개인 신상을 이용한 각종의 금융 범죄는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즉, 정보화 사회에서 컴퓨터라는 도구를 이용한 각종의 사이버 범죄, 컴퓨터 범죄 혹은 정보화 범죄(네트워크 범죄)가 사회적으로 확산되면서 사회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는 것이다. 컴퓨터범죄는 확실한 학문적 정의는 없지만 사전적으로 해석한다면 컴퓨터나 컴퓨터 시스템을 이용해서 일으키는 각종의 범죄를 말한다***. 이와 관련하여 네트워크 범죄는 통신회선을 접속한 정보통신에 관련된 범죄를 말하고, 사이버범죄는 컴퓨터범죄를 포함하여 사이버 공간에서 행해지는 모든 범죄를 말한다. 사이버 범죄가 발생되기 위해서는 우선 컴퓨터라는 수단이 있어야 하고, 이들을 연결하는 통신연결망(네트워크)이 전제되어야만 가능할 수 있다. 즉, 사이버 범죄는 컴퓨터 범죄, 네트워크 범죄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본문에서는 이들을 통틀어 '사이버 범죄'라 칭하기로 한다.

사이버 범죄는 인터넷과 같은 정보 통신망으로 연결된 컴퓨터 시스템이나 이들을 매개로 한 사이버 공간을 이용하여 일으키는 각종의 불법적인 행위로서 공공복리를 저해하고, 건전한 사이버 문화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 있다. 이러한 사이버 범죄는 빠른 시간 안에 불특정 다수에게 많은 악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사이버 공간이라는 특성상 정보 발신자의 특징이 어렵고, 전자 정보의 증거 인멸 및 수정이 간단하기 때문에 범인의 색출 및 범죄 수사에는 많은 어려움 따르고 있다****.

사이버범죄의 특징을 범죄 행위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공배완, 2004 : 127-128). ①범행의 연속성, ②범행의 광역성, ③범행증명의 곤란성, ④전문성과 기술성, ⑤시간적·공간적 무 제약성, ⑥빠른 전파성과 천문학적 재산피해, ⑦죄의식이 희박 등이다. 또한 범죄행위자 측면에서 사이버 범죄의 특징을 보면, 주로 고도의 컴퓨터 조작기술을 가진 사람들이고 연령층으로 본다면 타 범죄에 비해 비교적 젊은 층이 많다고 하는 점이 특징이다. 그리고 본인의 실력을 과시하기 위한 범죄로 유발되는 경우도 많고 특히 컴퓨터 조작기술만 익히면 은밀한 장소에서 범죄를 일으키므로 재범의 가능성이 많다(공배완, 2004 : 128). 다음의 표는 사이버 상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유형별 통계이다.

*** <http://100.naver.com/100.nhn?docid=151224>

**** <http://100.naver.com/100.nhn?docid=775269>

<표 3-1> 사이버범죄 유형별 범죄통계(2006.12.31)

구분	총계	해킹 바이러스	인터넷 사기	사이버 폭력	불법 사이트운영	불법복제 판매	기 타
02	41,900	9,707	19,395	4,726	862	1,778	5,432
03	51,722	8,891	26,875	4,991	1,719	677	8,569
04	63,384	10,993	30,288	5,816	2,410	1,244	12,633
05	72,421	15,874	33,112	9,227	1,850	1,233	11,125
06	70,545	15,979	26,711	9,436	7,322	2,284	8,813

자료 : 경찰청 자료실

사이버 범죄는 특히 2000년대 이후 정보화 사회가 진전될수록 더욱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범죄의 유형도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연령대별로 보면(표 3-2) 20대가 33.6%로서 가장 많고, 다음으로 30대 29.5%, 40대 22.1%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사이버 범죄는 젊은 연령층에서 많이 발생되고 있으며 범죄의 수법이나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으며, 피해규모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그림 3-1> 사이버 범죄현황



* 자료 : 경찰청 자료실

** 사이버테러형범죄 : 정보통신망 자체를 공격대상으로 하는 불법행위로서 해킹, 바이러스유포, 메일폭탄, DOS공격 등 전자기적 침해 장비를 이용한 컴퓨터시스템과 정보통신망 공격하는 행위

*** 일반사이버범죄 : 사이버 공간을 이용한 일반적인 불법행위로서 사이버도박, 사이버 스토킹과 성폭력, 사이버 명예훼손과 협박, 전자상거래 사기, 개인정보유출 등의 행위

<표 3-2> 사이버범죄 연령별 범죄통계(2006.12.31)

구분	계	10대	20대	30대	40대 이상	기타
비율 (%)	100	13.4	33.6	29.5	22.1	1.4

자료 : 경찰청 자료실

정보화에 따른 생활의 유익함은 삶의 질적인 변화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그에 따른 부작용은 다른 한편에서 개인의 재산과 명예, 심지어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정보기술이 사회를 선도하면서 제도적인 프레임이 준비되지 못한 과정에서 기술과 제도와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현상으로서 적절한 예방보다는 제도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IV. 사회변동과 범죄의 행태적 변화

1. 사회변동과 사회갈등

‘사회변동(social change)’은 사회의 변화를 의미한다. 즉, 사회의 구조나 질서 또는 그 구성요소가 내부적·외부적 요인에 의하여 부분적·전체적으로, 또는 단기적·장기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사회변동이라 하며, 사회변동은 어느 사회나 어떠한 형태로든지 항상 발생하고 있다. 사회구조는 의존과 대립이 공존하기 때문에 절대 불변일 수는 없고, 부분적인 변화도 파급적인 변동을 일으킨다. 구조와 변동은 상관적이므로 구조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변동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변동의 특성은 가속성과 동시성, 광범위성을 가지고 있으며**** 농경사회→산업사회로→정보사회로 사회구조적 변화를 거치는 과정에서 사회변동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에서 파급효과를 발생시킨다.

사회변동을 유발시키는 요인은 매우 다양하다. 새로운 과학기술의 발전에 의해 가능해지는 물질적 생산력의 증대가 변화의 원천이 되기도 하고, 희소성을 둘러싼 사회세력간의 갈등이 변화의 원인이 되기도 하며, 외부요인의 작용을 받아 변동이 발생되기도 한다(김승현 외, 1994 : 261-262). 물질적인 조건의 변화에 의해 사회구조나 정치 및 사회제도, 문화규범 등이 변화한다고 주장하는 학자(W. F. Ogburne, E. Durkheim, Herbert Spencer)가 있는 반면, 인간의 사고방식이나 가치관, 행동양

**** http : //blog.daum.net/white6944/8760683

식의 변화가 사회구조나 사회체제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는 학자(Auguste F. X. Comte, A. Saint-Simon)도 있으며, 사회체제가 사회변화를 리드한다고 주장하는 학자(Talcott Parsons)도 있다. 따라서 사회변동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주장하는 차이는 있으나 산업화 이후 가장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은 물질적 요인에 의한 사회체제의 변화에 대한 설명이라고 할 수 있다.

오그번(W.F. Ogburn, 1922 : 139-150)은 현대사회의 변모과정에 있어서 산업화-도시화의 물질문화가 사회를 변동시키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고 했으며, 과학기술에 의한 변동속도는 정신문화나 제도적 문화보다도 훨씬 빠르고, 그러한 변동의 과정에서 사회구조적인 차이를 발생시킨다고 한다. 또한 프랑스의 사회학자 뒤르켐(E. Durkheim)은 산업의 발달로 인한 고도의 분업상태가 사회적인 여러 조건의 변화를 유발시킨다고 한다(김승현 외, 1994 : 266). 다시 말해, 단순사회체제의 저 분화된 사회에서는 개인들 간의 유사성이나 공유성이 범주가 크기 때문에 기계적 결속이 이루어지나, 산업사회의 고도분업 사회에서는 개인들 간의 이질성이 확대되면서 상호의존적-상호배타적 관계가 형성되고 이러한 관계 속에서 사회적인 조건들은 변화를 일으킨다고 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발전과 더불어 사회갈등은 당연한 귀결이라 할 수 있다.

사회변동은 단일한 요인에서 비롯되지 않고 복합적인 동인에 의한다. 복합적 요인에 의한 변동과정이 사회생활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사회적 병리사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급격한 산업화(고도경제성장)에 수반되는 환경파괴나 공해의 심각화, 관리화(관료제화), 인간소외의 심화, 도시화에 의한 범죄의 증가, 지역해체 등이 이에 속하며 이러한 현상은 사회적인 갈등관계로 나타난다.

‘갈등(conflict)’은 제한된 목표를 서로 차지하기 위해 여러 사람이 투쟁하는 과정을 말한다*. 따라서 사회 내의 갈등이란 사회구성원간의 대립, 경쟁, 충돌을 일으키는 상태를 말하며, 이러한 과정이 사회적인 아노미 상태를 유발하면서 불법과 부조리, 범죄행위의 근원이 되고 있는 것이다. 갈등이론자들은 사회의 동태적인 측면에 주목하여 사회 내의 변동과 불안정을 통한 다양한 갈등이 발생한다고 설명한다. 이에, 모스카(Mosca, 1993, Webber, 1995 : 37, 김근홍, 2002 : 53 재인용)는 사회 희소자원의 불평등한 분배문제로 갈등이 발생하고, 불평등의 심화는 지배-피지배 계층을 구조화하여 방어와 반항을 사회적으로 정착시켜 구조적 갈등관계를 형성케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갈등은 사회적 권위구조에서 발생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권위구조는 산업화 또는 정보화의 과정에서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의 형성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이는 계층 간-세대 간의 갈등을 유발시켰다. 이러한 사회구조에서는 ‘자유’와 ‘경쟁’이 사회적인 구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신갈등주의의 대표적인 학자인 디렌돌프(R. Dahrendorf, 1974)는 현대사회의 갈

* [http : //www.2u.x-y.net/cgi-bin/technote/read.cgi?board=lob004&cy_number=92&nnew=2](http://www.2u.x-y.net/cgi-bin/technote/read.cgi?board=lob004&cy_number=92&nnew=2)

등은 권위관계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한다. 권위관계는 합법적 지배와 복종의 집단 갈등이 존재하는 전체 사회의 조직과 그 사회 내의 결사를 의미하는 사회구조로 인식한다(김영모, 1999 : 31). 따라서 권위관계는 항상 지배와 복종의 관계이며, 이는 절대적인 관계보다는 상대적인 관계로 이해된다. 이념갈등이나 지역갈등, 세대갈등, 문화갈등, 그리고 노사갈등은 이러한 과정에서 파생되는 한국사회의 대표적인 갈등으로 볼 수 있다.

갈등론적인 입장에서의 사회관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사회의 모든 요소는 긴장·경쟁·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이다. ②갈등의 원인은 사회계급간의 권력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③지배집단은 피지배집단과 언제나 불일치와 갈등을 보이며, 이것은 사회분열과 사회변동을 초래하기도 한다. ④사회질서 유지의 지배집단의 강제에 바탕을 두고 있다** 등이다.

사회적인 갈등은 조직의 활동성과 변화를 창조한다는 순기능보다는 안전성과 조화성, 적법성을 훼손하고 개인간·조직간의 대립과 마찰을 극대화시키는 역기능의 표출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사회범죄와 직·간접적인 연관성을 갖고 있다. 결국 산업화와 정보화는 사회변동을 유발하는 내·외생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하였고, 이러한 변동의 과정에서 사회갈등과 사회범죄는 불가분의 관계로 표출될 수밖에 없는 환경적 요소를 가지고 있었다.

2. 사회변동에 따른 사회범죄의 변화

오늘날 범죄문제는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하였다. 사회가 발전하고 개인소득이 증대함에 따라 범죄문제는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과는 달리 오히려 범죄는 사회발달과 더불어 다종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많은 국가에서는 범죄의 예방과 방지에 막대한 예산과 국력을 쏟아 붓고 있으며, 시민의 안전한 생활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범죄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은 18세기 이후 산업혁명과 더불어 사회문제(주택문제, 소득문제, 빈곤문제, 계층화문제 등)가 표면화되면서부터 시작하였다. 그러나 범죄의 빈도는 산업화의 과정에서 일시적인 현상으로만 끝나지 않고 사회발달과 더불어 사회변동 현상에 의해 더욱 다종다양하게 확산되어 나타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하였다.

사회변동은 사회구조나 구성요소가 변화하는 것으로서 물질적인 요인, 즉 과학기술의 발달에 기인하고 있다는 것은 위에서 살펴보았다. 다시 말해, 과학기술의 발달은 사회변동을 유발하고 사회변동은 사회범죄를 양산하는 촉매제로 작용을 한다는 것이다. 역술하면 변동이 발생하지 않으면 사회범죄도 둔화될 것이라는 추측이다. 반면에 사회발전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소득이 증가되지 않으므로 해서 삶

** http://www2u.x-y.net/cgi-bin/technote/read.cgi?board=lib004&y_number=92&nnew=2

의 질도 개선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비록 추측이기는 하지만 현대사회에서는 불가능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사회는 어떠한 형태로든 발전을 하게 되고, 또한 발전의 과정에서 사회변동은 발생하게 될 수밖에 없는 필연적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변동이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대표적인 관점은 사회를 하나의 유기체로 보고 사회변동의 과정을 생물학적 진화의 개념으로 파악한 다윈(Darwin)의 진화론이다. 진화론의 입장에서 보면 인간사회는 적자생존의 치열한 경쟁의 장이 될 수밖에 없고 경쟁은 갈등을 유발하며 이 과정에서 강자의 진보와 약자의 도태가 발생하고, 따라서 인간사회는 진보된 사회발전을 이룩해 간다는 것이다(김승현 외, 1994 : 263).

한국의 경우 산업화·공업화의 과정에서 사회변동이 발생되면서 자본가와 노동자라는 새로운 사회계층이 형성되었고, 도시화로 인해 농업적 기반위에 구축된 구 중산층이 해체되면서 도시 노동자의 창출이 대량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변동 구조는 재벌을 탄생시키기도 하였지만 범죄의 양산을 가져오기도 하였다. 산업화 과정에서는 주로 사회계층 형성에 불만을 품은 집단 또는 개인에 의한 범죄나, 개인적 욕구가 현실화 되지 못하거나 좌절되는 경우에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양상의 범죄는 크게 세 분류로 나누어진다(김근홍 외, 2002 : 80). 첫째, 개인적 범익에 대한 죄(생명과 신체, 자유, 명예와 신용, 사생활 침해, 재산범죄 등)와 둘째, 사회적 범익에 대한 죄(공공의 안전, 공공의 신용, 공중건강, 사회도덕 등), 셋째, 국가범익에 관한 죄(국가의 존립과 권위, 국가의 기능 등) 등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강력범죄, 재산범죄, 위조범죄, 풍속범죄, 과실범죄, 공무원범죄, 국가전복죄, 기타범죄 등으로서 주로 사회계층화의 불만에 의한 범죄들이다. 한국의 사회계층화는 급속한 산업화·도시화 과정에서 급조된 것이기 때문에, 이는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개인의 노력을 통해서 형성된 것이기보다는 변칙과 부조리 등에 의해서 조작된 계층이라는 사회적인 인식이 계층화를 용납하지 못함으로서 발생하는 범죄이다. 이러한 계층구조가 와해되지 않는 한 범죄는 지속될 수밖에 없고, 또 다른 사회변동을 거치면서 다른 양상의 범죄가 추가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산업화 이후에 나타난 정보화 사회는 현실사회와 가상공간을 구별하면서 또 다른 사회변동을 유발시켰다. 정보화 사회는 물질적인 요인보다는 지식이나 정보 등 비물질적인 요인에 의해 부가가치가 생산되는 사회로서 혁명에 가까운 사회변동을 유발시켰다. 이러한 변동은 기존의 사회계층을 존속시킨 채 기존 지배계층과의 접목(자본+지식)을 통해 새로운 사회계층을 창출해 내었다. 정보의 보유와 활용성에 따른 계층형성의 기회였던 것이다.

2007년 7월 전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터넷 인구는 이미

290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65% 이상이 사이버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초고속망이 보급된 가구 수도 1100만호에 달해 포화상태에 접어들었으며 이동전화 가입자는 3300만명에 이르는 등 놀라운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인터넷 kr 도메인 역시 55만여 건에 달하는 등 4년 전 2만 건에 비해 폭발적인 신장을 기록했다. 더욱이 인터넷은 이제 단순한 e메일이나 정보 검색 수단을 넘어 전자상거래, 전자정부, 사이버대학, 사이버뱅킹, 사이버공동체 등 모든 경제, 사회활동의 실질적인 공간이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화의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반면 부정적인 측면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활발한 의사소통과 생활의 편리성, 그리고 개인의 창의성과 개성이 존중되는 측면이 긍정적인 면이라고 한다면, 부정적인 측면은 사생활 침해나 불건전한 정보배포, 사이버 상에서 발생하는 각종의 범죄 등이다. 위의 <표 3-1>에서 보듯이 2006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사이버 범죄건수는 총 7만 건이 넘어서고 있으며, 이 중에서 2만 6천 건 이상이 인터넷 사기이고, 다음으로 1만 5천 900건 정도가 해킹이나 바이러스 범죄로 나타나고 있다. 연령별로는 20대가 33.6%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30대가 29.5%로서 사이버 범죄는 주로 젊은 층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2006년의 총 범죄발생 건수는 1,001,190이나 이 중 약 7% 정도인 70,545건이 사이버 범죄로서, 사이버 범죄가 전체 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보화의 초기 단계인 2002년의 경우를 보면 전체 범죄발생 건수는 총 1,180,270건이고 이 중 사이버 범죄는 41,900건 정도로서 약 3.6%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컴퓨터나 인터넷의 보급률이 확산되던 2006년에는 2002년도에 비해 사이버 범죄가 약 2배정도 증가하였다.

현대사회에서 사회변동요인으로서 산업화와 정보화는 단절된 상태에서 독립적으로 발전해 가는 것이 아니라, 산업화의 연장선에서 정보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산업화의 사회적 요인들과 정보화의 과정에서 파생되는 사회문제들은 복합적으로 상호작용 하면서 범죄의 상승효과를 유발한다. 즉, 산업화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존의 범죄들이 소멸되거나 변질되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양적인 둔화상태에서 정보화로 인한 사회문제들이 사이버 범죄로 표출되는 경우와, 산업화의 사회문제들과 정보화의 사회문제들이 복합적인 형태에서 다종다양한 범죄들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변동에 따른 사회범죄의 변화와 증가도 비례적인 추세로 꾸준하게 발달하고 있다.

*** http://kr.ks.yahoo.com/service/ques_reply/ques_view.html?dnum=KAK&qnum=553474

V. 결 론

사회변동은 살아있는 유기체와 같은 존재이다. 사람들로 구성된 사회는 변화될 수밖에 없는 당위성을 갖게 되고 또한 변화를 통해서 사회는 발전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의 과정은 사회발전이라는 긍정적인 측면과 범죄양산이라는 부정적인 측면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사회발전은 물질적인 풍요를 통해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생활의 편리함을 가져다준다. 반면, 사회범죄의 증가는 일상생활을 안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생명과 재산까지도 위협을 하게 된다. ‘안전’을 무시하고 ‘성장’만을 고집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성장’만을 위해 ‘안전’이 소홀하게 취급되어서도 안 된다. 사회변동의 과정에서는 두 가지 다 고려되어야 하고 최대와 최소를 구별하여 적정수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한국은 1970년대부터 본격적인 산업화를 추진해 오면서 많은 부작용과 폐단을 도출시켰다. 특히, 압축된 고도성장은 사회계층을 뚜렷하게 이분화 시킴으로 부정과 부패, 부조리 등 많은 사회범죄를 유발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였다. 이러한 범죄의 양상은 흉악하고 대형화되는 경향을 띠면서 사회적으로 확산되어 갔고, 이는 계층 간의 대립과 갈등양상으로까지 확대되는 현상을 보이면서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정착하게 되었다.

200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정보화 사회는 범죄의 양상을 새롭게 도출시키면서 산업화 과정의 범죄행태와는 차별성을 보였다. 컴퓨터라는 도구가 일상생활 수단으로서 이용되고 확산되면서 사이버 범죄가 증가하게 되었고, 이러한 범죄는 지능화·전문화 되어가는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사람의 신체에 직접적인 위해는 가하지 않더라도 온 라인을 이용한 금융자산이나 지식정보를 교묘하게 이용함으로써 간접적이거나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현대사회는 사회변동의 추이에 따라 범죄의 양상도 달리 표출되며, 기존의 범죄가 소멸되지 않은 채 새로운 범죄가 추가되어 발생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참 고 문 헌

- 공배완 외(2004). “민간경호경비의 발전에 대한 자본주의의 사회환경적 해석”, 한국경호경비 학회지 제7호.
- _____ (2004). 「민간경비학 개론」, 서울 : 한울출판사.
- _____ (2007). 「최신 경비업법」, 서울 : 한울출판사.
- 김근홍 외(2002). 「한국의 사회문제」, 서울 : 도서출판 양지.
- 김병무(2001). 「현대사회학의 이해」, 서울 : 청목출판사.
- 김성수(1997). 「한국경제의 발전」, 서울 : 학문사.
- 김승현 외(1994). 「현대의 사회과학」, 서울 : 박영사.
- 김영모(1999). 「한국사회의 이해」, 한국복지정책연구소.
- 송병락(1997). 「한국경제론」, 서울 : 박영사.
- 오세진 외(2003). 「인간행동과 심리학」, 서울 : 학지사.
- 이만중(2002). 「범죄학 개론」, 서울 : 학현사.
- 전대양(2002). 「현대사회와 범죄」, 서울 : 형설출판사.
- 정일환 외(2002). 「사회발전과 인적자본론」, 서울 : 교육과학사.
- 허경미(2006). 「현대사회와 범죄」, 서울 : 박영사.
- Eliane Mosée.(1980). Les Riches et les Pauvres, Paris : Economie.
- H. Wilensky & C. Lebeaux.(1965). Industrial Society and Social Welfare, New York Russel Sage Foundation.
- Lévi-Strauss.(1971). Mythologique : l'homme nu, Paris : Plon.
- Lilly Marcou.(1980). Le Mouvement Communiste Internationale depuis 1945, Paris : puf.
- Michel Beaud.(1987). Histoire du Capitalisme, Paris : Economie.
- M. Micklin and H. M. Choldin.(1990). Sociological Human Ecology, Bould : Westview Press.
- R. Dahrendorf.(1974). Theory and Method of Sociology, Verlag : Munchen.
- Roger-Gérard Schwartzenberg.(1988). Sociologie Politique, Paris : Montchrestien.
- William Fielding Ogburne.(1922). Social Change, Chicago.
- W.W. Rostow.(1960). The Stages of Economics Growth : A non-communist manifesto, N-Y.

<http://100.naver.com/100.nhn?docid=706848>

<http://100.naver.com/100.nhn?docid=10952>

http://kr.ks.yahoo.com/service/ques_reply/ques_view.html?dnum=H&qnum=500634

<http://100.naver.com/100.nhn?docid=89307>

http://kr.ks.yahoo.com/service/ques_reply/ques_view.html?dnum=AAA&qnum=307936

<http://100.naver.com/100.nhn?docid=151224>

<http://100.naver.com/100.nhn?docid=775269>

<http://blog.daum.net/white6944/8760683>

http://www2u.x-y.net/cgi-bin/technote/read.cgi?board=lob004&y_number=92&nnew=2

http://www2u.x-y.net/cgi-bin/technote/read.cgi?board=lib004&y_number=92&nnew=2

http://kr.ks.yahoo.com/service/ques_reply/ques_view.html?dnum=KAK&qnum=553474

ABSTRACT

A Study on the Crime Transition about Social Environment Evolution

Gong, Bae-Wan

This study is trying to analyse the correlation between the crime behavior and the social alteration or development. Capitalism reposes on economic competition, and the impact of capitalism is according to crime behavior. Then the type of crime and the diversity of crime are transformed by the social environment and the social development. So this study is divide into 3 parts. The first is the correlation between industrialized and crime. It means that the industrialized is accompanied with the urbanized and arouse a material desire, these social phenomenon are a high correlation with increase of violent behavior and the crime. The second party is explain and analyse the correlation between the information and the crime. The information causes other type crime by contrast with the industrialized age and society. If the industrialized has caused the violent behavior and the crime, the information is too clever by half and break out the crime in the companionship of innumerable unspicifness. So, the crime of the information age is a very wide scope and casualties, especially has a concealment of crime. And the third party describe in conclusion the social alteration and the extension of crime. Social alteration or social development is according to economic development. Competitive economic development include many complication and friction in a society, these factors are expressed in various crime. In the result the occurrence and the type of crime is a high correlation between the social alteration or development.

Key Words : Crime, Social alteration, Crime evolution, Economic development